

CT
261.1
74337

칼빈과 루터의 가난한자에 대한 관심
: 그들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비교

指導教授 : 신 원 하

高神大學校 神學大學院

神 學 科

공 은 성



고신대학교



DM00003309

1994 學年度

칼빈과 루터의 가난한자에 대한 관심
: 그들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비교

지도교수 : 신 원 하

이 논문을 석사과정 졸업논문으로 제출함.

199 년 월 일

고 신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공 은 성

1994 학 년 도

공 은 성의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1 9 9 년 월 일

목 차

I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과 범위 -----	1
II 칼빈과 루터의 가난의 신학 -----	2
A. 칼빈의 가난의 신학 -----	2
1. 창조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본 가난 -----	2
2. 하나님의 신비한 교육수단으로서의 가난 -----	4
3. 그가 이해한 부와 빈곤 -----	6
B. 루터의 가난의 신학 -----	8
1. 모든 크리스찬 활동의 전제와 근원으로서의 의인 -----	8
2.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	10
3. 사회, 경제적 가난 -----	13
4. 십자가 밑에 선 그리스도인들 -----	18
5. 고난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	19
III 가난한 자들을 위한 칼빈과 루터의 사역과 활동 -----	20
A. 칼빈의 사역과 활동 -----	20
1. 집사직 -----	20
2. 종합구빈원 -----	23
3. 상업 -----	24
4. 사치금지법 -----	25
5. 고리대금업 -----	27
B. 루터의 사역과 활동 -----	28
1. 공정가격론 -----	28
2. 사유재산권 -----	30
3. 이자 -----	32

4. 상업 -----	33
5. 사치금지법 -----	34
IV 가난한 자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 -----	36
A. 개인적 차원 -----	36
B. 교회적 차원 -----	39
C. 사회, 구조적 차원 -----	39
V 결론 -----	41
VI. 참고문헌 -----	44

I 서론

A. 연구목적

가난은 모든 시대마다 존재해왔고 그 시대의 역사, 정치, 경제적 배경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각 시대마다 존재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명약관화하다. 가난은 성경의 각 시대별로 저자들에게 의해 다루어졌고 교회 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 또한 가난은 역사적으로 절대 간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이 가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한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은 어떤 것인가?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가난에 대하여 어떤 신학적 토대를 견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글들을 통하여 가난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립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을 중세 종교 개혁기에 활동한 칼빈과 루터의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대두되어 지는 상황에서 칼빈과 루터가 가난에 대하여 가졌던 입장이 어떠한가를 비교 분석하여 보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 입장과 그에 따르는 그들의 활동을 비교 연구하여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가난에 대한 자세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쓰여진다.

B. 연구방법과 범위

이 글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칼빈과 루터의 가난의 신학, 둘째, 가난한 자를 위한 칼빈과 루터의 사역과 활동,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다.

첫번째 부분에서의 논의는 칼빈과 루터가 어떤 신학성을 가지고 가난에 대해 접근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들의 가난에 대한 성경적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며, 가난에 대해 내린 정의와 가난의 개념 설명을 아울러 할 것이다.

두번째에 대한 논의는 그들이 내린 가난에 대한 신학의 토대위에서

실제적으로 당시 사회에 어떻게 사역했으며,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칼빈의 제도화, 법률화를 통해 사역한 점을 증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루터는 제도와 어떤 법률밖에서 당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 간접적으로 사역했음을 다룰 것이다.

세번째에 대한 논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곁에 있을 것이라는 성경말씀에 기초해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칼빈과 루터의 가난의 신학

A. 칼빈의 가난의 신학.

1. 창조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본 가난

칼빈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1) 그의 윤리의 기초는 성경이며 하나님 중심적 윤리이다. 칼빈은 가난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였다. 가난한 자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그의 인간관에서 출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 1권 15장 3절에서 칼빈은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창 1:27)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같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2)고 했다 칼빈은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대작이요. 이 안엔 하나님의 정의, 지혜, 선하심이 번득인다3)고 말한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가난을 이해하는 주된 동기를 형성하게 되어진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의 인간관이 중요한 근간이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난은 그 자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과의 관계 상에서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가난한자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부정의는 하나님

1) H.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ohn Com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ha (Grand Rapids Rapicls: Baker Book House, 1959):127.

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T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127., 영·한기독교 강요(성문사, 1990):363에서 재인용.

3)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역(성광문화사, 1985):25

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무관심이요 부정의로 보았고 부의 분배와 교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 파악한 것이다. 앙드레 비엘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가난을 초래하는 원동인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인 불의, 부의 소유, 매점매석, 탐욕, 사치, 낭비, 방탕 등과 같은 현상을 죄의 조건으로 보았다.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에게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선한 행위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및 동료와의 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하고만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인간관에 있어서 가난을 이해했으며 이 창조질서 위에서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야 말로 우리들이 이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결정케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간이 되는 진리라고 생각했다. 즉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와 능력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건 간에, 그러한 외적인 요소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가 마땅히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인간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 칼빈에게 있어서 한가지 분명한 진리는 인간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진리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시기에 만약 어느 사람이 다른 인간들의 잔인성과 사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 당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을 받으신다는 생각하였다.⁶⁾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즉각 하나님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졌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의 기반과 지평에서 그는 인간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육체와 한 본성에 속해 있는 단일성을 지닌 사람들

4) 앙드레 비엘러, *op. cit.*, 64.

5)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 Co, 1983): 78., 신원하,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 (고려신학보 제 25집, 1993): 9에서 재인용.

6)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ndon : Oliver and Boyd, 1959): 149., 신원하, *op. cit.*, 10에서 재인용.

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 인류는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모두 이웃들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은 창조의 중요한 질서를 결정지어주는 것이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적 적용이었다.

2. 하나님의 신비한 교육수단으로서의 가난

거의 모든 기독교 사상가들처럼 칼빈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현대의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칼빈은 빈곤이나 불행은 그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의 근거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번영을 어떤 개인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도 역시 보지 않았다. 칼빈은 물질적인 축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경건한 삶을 산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선행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표시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또 한편으로 칼빈은 빈곤 그 자체가 어떤 본유적인 가치를 소유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추호의 동의도 하지 않았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중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난에 대한 생각과는 궤를 달리하였다. 칼빈은 자발적인 청빈과 가난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으로 빈곤을 고양시키고 가난을 찬양하는 중세적인 입장과 태도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가난이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가난과 빈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간 사회에 존재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 15:11의 구절은 가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다. 예수께서도 요 12:8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신 바 있다.⁷⁾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피상적이고 속명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속명론적인 가난에 대한 이해는 자칫 잘못하면 현 사회체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옹호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달리 가난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스러운 방법을 가리켜주는 그러한 지침계로 이해하고자 한다.⁸⁾ 왜 하나님께서 빈

7) 요 12:8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8) Hans Sholl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 일컫는다. Hans Sholl,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med Tradition” in *The Ecumenical Review* 32(1980):224., 신원

곤을 인간들에게 존재케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자 모두에게 그의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민15:11-14에 대한 강론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단지 운(fortune)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후의와 친절을 깊이 살펴보기 위해 이 세상의 재화들을 불공평하게 분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가 관대한지 아닌지를 알아 보는데 있어서 이 재화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다른 가난한 사람의 경우 비록 그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가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약하고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 힘든 상황을 넘기려 하기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가난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시험하는데 참으로 훌륭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⁹⁾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부서지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 받은 그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관대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려하고 사랑에 의한 구제의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

그러므로 부의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인간편에서는 신앙을 증명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빈곤을 즉각 제거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고 굳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중세기에 이르는 시대까지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자들에게 선행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과제로써 이 가난을 이상화했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으로 가난을 이상화 하였다.¹⁰⁾ 이같은 점에 있어서 칼빈은 비록 가난이 구원의 수단이나 또는 성화의 수단이라도 보지는

하, op, cit., 11에서 재인용.

9) Calvin Opera, xxvii, 338.,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역(생명의 말씀사, 1986):93에서 재인용.

10) Carter Lindberg, "There Should be No Beggars among Christians: Karlstadt, Luther and the Origins of Protestant Poor Relief" in *Church History* 46/3(1977):317~318., 신원하, op, cit., 12에서 재인용.

않지만 가난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교육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점에서, 칼빈의 가난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은 고대 기독교적인 사상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가 이해한 부와 빈곤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칼빈도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일상적인 양식의 공급에 의해 그의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보았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면전에서 먹는 음식같은 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에라스무스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아버지같이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적은 일 에까지도 미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무시하지 않으신다.”¹¹⁾ 하나님은 재물을 인간의 수중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재물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물질에는 공리주의적인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영적인 사명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세속적인 부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천국의 부요를 나타낸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내세의 풍요함을 예표하듯이 물질적인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된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빈곤이나 가난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냉대의 증거가 아니며 부와 번영은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축복일 뿐 구원을 전제로 한 선택의 징표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세속적인 번영과 선과의 사이에는 어떤 형평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질을 소유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심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좀 적게 가질수도 있는 것이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마다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물질이 재분배 되도록 하시려고 물질을 차등하게 분배하셨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중재자이며 이점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또는 부자로 사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운명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해 칼빈은 “그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집을 값지게 꾸미는 것이 더할나위 없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획득한 부를

11) 존 칼빈, 공관복음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296. cf. Mattaw, 6:11

잘 간직하려고 할 뿐 그리스도가 명한 모든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를 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말씀도 그들같은 수전노들에게는 공허하여 꿈같이 들릴 것이다.”¹²⁾라고 슬회하였다.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를 독차지 하려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 칼빈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공공복지가 증진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가진 사람이 물질을 통해 형제들을 돕는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칼빈의 경제관의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재물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무시된다거나 거부되어서 안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를 혼자서 호의호식하며 독점적으로 누려서는 안되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완화시켜 주는데 사용하여야 하므로 부자들의 사명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과 연대 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된다. 칼빈 자신도 제네바시의 책임 있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고액의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드는 약간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기재산을 이웃구제를 위해 다 써 버렸다. 칼빈이 경제분야에서 주장한 가장 명쾌한 이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자신도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몸의 지체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우리는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 나도 만일 궁지에 빠진다면 나의 이웃의 도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성도간의 교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합시키시고 우리를 한몸으로 연합시키실 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제의 사랑을 갖으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만이 물질에 탐닉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¹³⁾고 하였다. 칼빈의 경제윤리는 상호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자가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되어야 할 것이 인간의

12) 존 칼빈, 공관복음 II, op. cit., Luke 16:14.

13) Ibid., Timoth 6:14(quoted in A Bieler, op. cit., 324)

탐욕과 욕심때문에 파괴됨으로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무질서가 야기되었다고 본다.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나 과부 및 이방인을 위한 히브리적인 관심과 모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

바로 이런 신념이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돕기위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화 하여서 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한 것이다.

B. 루터의 가난의 신학

루터와 가난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1524-1525년에 일어난 농민 전쟁에 대한 루터의 반응에 집중 되어 왔다. 루터에게 있어서 가난은 칼빈의 그것과 다르다. 칼빈이 가난을 일관성있게 정의 했다면 루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르게 정의를 했다. 그는 네 단계로 가난을 말했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 논의의 서술은 먼저 그의 가난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 데는 어떤 관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네 단계 가난의 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모든 크리스찬 활동의 전제와 근원으로서의 의인

루터의 윤리의 출발점과 그 주요한 특징과 그 전제를 그의 신학의 핵심인 은혜를 받은 죄인의 의인(the Justification of the sinner through the grace)에 의하여 결정된다.¹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의인이 윤리 생활의 근원과 전제이므로 신앙에 의한 의인이 기독교 윤리를 결정한다. 칼빈이 인간관에 기초해서 가난의 신학을 형성했다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 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을 기초해서 그의 가난의 신학을 형성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의 가난의 접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전제되어있다. 루터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들의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⁵⁾고 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이웃만을 도와야 한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이미 공급해 주셨으므로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내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14)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Fortress, Minneapolis):100~110 참조.

15) 파울알트하우스, 말틴루터의 윤리, 이희숙역(컨콜디아사, 1989):29.

미리 주신다. 그밖에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¹⁶⁾고 하였다. 의인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한 문제로 루터는 선한 양심을 든다. 이것은 반드시 신앙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의 “예” (justifying “yes”)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내재적 의미에 있어서 양심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역설적인 방법으로, 즉 용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인의 행위(God’s act of justification)를 통하여 선한 양심이 된다.¹⁷⁾ 루터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신자가 의롭다 함을 받은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행위가 수행된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그것은 선하다고 말한다. 루터는 이것을 그의 「선행에 관한 논문」, 「루터 선집, 제 9권 참조 (서울 : 컨콜디아사, 1983) 에서 매우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신자의 모든 행위는 “신앙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신앙안에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행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놓여있다.¹⁸⁾ 이러한 신뢰가 이

16) “당신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말을 가끔 들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다 강하게, 보다 부요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일들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그리고 부요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WA10, 222. 「루터선집」 바이마르판(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 Gesamtausgabe, Weima:Bohlau, 1883ff)을 인용했는데, 面, 行의 순서로 기입하는 관례를 따랐다. 이하 이 책의 인용표시는 WA로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서 공적을 쌓기 위하여 나의 일을 하고저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자비에만 의존하나이다.’” WA 10, 279. “우리들의 모든 일은 사랑과 즐거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격의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일은 우리 이웃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데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WA 12, 333; LW 30, 79. 이 약어는 Jaroslav Pelikan과 Helmut T. Lehmann이 공동 편집한 Luther’s Works. St. louis:Concordia Publishing House;and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55ff를 가리키며 숫자는 권, 면을 의미한다. 이하 이 책의 인용표시는 LW로 한다.

17) WA6, 205; LW 44, 24.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것으로 만든다. 신앙은 “모든 일 중에 첫째가는 가장 높고 가장 귀중한 일이다” 또한 “ 으뜸가는 일”이다. 신앙이 없으면 모든 다른 일들은 아무 것도 아니요 죽은 것이다¹⁹⁾라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루터의 가난에 대한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며 이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이웃을 향하는 것이다. 루터는 특별히 가난에 관한 논의를 가난한 자들에 관해 정의함으로써 그의 가난에 대한 신학을 표명하였다.

2.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정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1513-1516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정의이다. 지금 남아 있는 루터의 최초의 성경 주석 가운데서 가난에 관해서 언급하는 용어들이 100회 이상 출현하고 있다. 루터는 이렇게 수많은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다룸에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어떠한 사회, 경제적 해석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난은 사회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해석은 기독교적 컨텍스트 속에 이러한 용어들의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중요성을 부여해 주었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부와 그 획득, 가난과 그 고난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 있고, 오직 자신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로 이해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러한 동일화는 1513-1515년에 쓴 《Dictata suPer Psajterium》, 즉 「시편 강화」에 나타난 한결같은 논의이다.

1) 신실한 자들과 동일시된 가난한 사람들

루터는 그의 「시편 강화」 서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당시의 교회적인 용어인 “신실한 자들”²⁰⁾과 동일시했다. 그는 행간 주석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중의 신실한 자들” 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동등시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동일성(identity)을 명료화시켰다.²¹⁾ 더우기 권위와 부가 영혼과 동떨어져

18) “선한 일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다. 선한 일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의 보장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WA6.229:LW 44, 54; WA6.204, 263; LW 44, 24, 97.

19) WA 6, 204-205, 210, 255; LW 44, 23-24, 31, 33, 87, 113.

20) W.A., 3, 87, 28.

21) W.A., 3, 86, 13.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은 그러한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의해서 억압받을 수 없다. 그 결과 이 세상의 권력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시편 기자가 불의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뺏쳐 버리는 자들에 관하여 말할 때, 루터는 그러한 범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악한 교리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밝혔다.²²⁾ 가난한 사람들의 적은 무엇보다도 이단자들이다. 해악한 교리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맹습을 참고 견디며 교회의 구원의 교리를 더럽히는 자의 영혼까지도 회개 시켜려는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다.²³⁾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불경건하며 거만한 자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억압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적대자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루터는 “가난하다”, “부유하다”는 용어를 반대하는 열망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부자들은 세상의 소유물을 축적하려는 포부를 가진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욕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한 실재들을 동경한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영적이다. 그 결과 성경적 언어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²⁴⁾ 이와 같이, 그가 시편 74편 4절—“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을 해석할 때 사회, 경제적 해석을 거부했다.²⁵⁾ 오히려 억압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높이에서 끌어내려 세상적이며 일시적인 평지에 묶어두려는 유혹인 것이다. 인류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세상적이며 일시적인 관심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과 둘째, 하나님과 영원한 실재를 바라보며 영혼과 하나님에게만 깊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함을 미워하고 자아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원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 자기 자신들을 영화롭게 한다.²⁶⁾

2) 가난과 수도원 서약

루터의 가난에 대한 정의를 더욱더 한정시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22) W. A. , 3, 100, 9.

23) W. A. , 3, 87, 36.

24) W. A. , 3, 458, 23.

25) W. A. , 3, 459, 27.

26) W. A. , 3, 491, 16.

같다. 루터는 청빈을 서약한 수도승으로서 강당 안은 물론 밖에서도 그의 소명은 같이 나누는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친분을 맺었으며 그의 수도원 생활을 「강화」(Dictata)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 루터가 수도승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지정되었다고 믿었을까? 그는 1512년에 발표한 “수도원 서약에 관한 마르틴 루터의 판단”(Judgement of Martin Luther on Monastic Vows)이라는 논문에서 수도원적 합의가 이러한 결론을 밀바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속에서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수도원 서약에 관련시킨 구절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루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싸우는 모든 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²⁸⁾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시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굶주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구절을 모든 신실한 자들이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 있을지라도 성경과 말씀의 선포로 배부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²⁹⁾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은 수도원 서약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빈곤이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그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간혹 자서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우기 그 서약이 구원을 위한 투쟁의 생사에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 투쟁은 단순한 시험이 아닌 기독교적 영적 빈곤의 총체적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겸손 때문에 가난하다. 그의 영적인 투쟁은 그를 무로 환원시키는 낮아짐을 심화시키고 강화시켜 준다.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과 그가 의지해야 할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3)절대적 이원론

루터는 그의 생애의 후반기에 이러한 양심의 공격을 시험들(Anfechtungen)이라고 일컬었다. 그것들은 사탄의 내림을 통해서 또는 자신을 잃거나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³⁰⁾ 그러나 가장 심각한 시험은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위엄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유한성과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만나신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루터는 위엄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활동을 아시고 모든 인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시무시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³¹⁾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즉 가난

27) W. A. , 8, 641, 32.

28) W. A. , 4, 254, 18.

29) W. A. , 4, 432, 2.

30) W. A. , 4, 200, 13.

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영적인 위기(a Spiritual crisis)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실한 자들만이 그들의 위험을 깨달으며 그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쓰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한다. 루터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시험에 종속되기 쉽다고 생각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루터는 시편 34절 6절—"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을 주석하면서 행간 주석란에 "당신께 말하는 자, 곧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자는 바로 저입니다."라고 썼다.³²⁾ 「강화」 속에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인용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그 저작이 지키고 있는 절대적 이원론(the absolute dualism)과 일치하고 있다. 주석 전반에 걸쳐 현재와 미래,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가 나타나 있다. 에벨링(Gerhard Ebeling)은 이러한 이원론이 중세기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변형 될 만큼 철저한 것이었으며³³⁾ 포괄적인 이원론에 기초한 해석적인 입장은 빈곤에 속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화」에 일관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 언어의 의미가 오직 그 내용의 영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일반 대중의 문자주의 해석은 오직 믿음으로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성으로 이해된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진리를 어둡게 한다.

3. 새로운 정의 : "사회, 경제적 가난" 1516-1519

시편에 관한 정의들 중에서 가난의 개념은 어떤 사회, 경제적 의미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은 굶주림이나 비참함, 억압이나 사회적 무기력성, 정치 구조나 계급 구조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빈곤을 마치 궁핍한 자들이 고상한 삶에 필요한 상품들의 결핍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된다는 식으로 낭만화시킨 것은 아니다. 더우기 루터가 현세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이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강화」는 물질적인 빈곤을 구원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으로 귀속시킨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에 관

31) W. A., 3, 190, 24.

32) W. A., 3, 185, 21.

33) Gerhard Ebeling, *Luther studien*, Band I
Tubingen(J. C. B. Mohr, 1971): 17.

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영적인 위기(a Spiritual crisis)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실한 자들만이 그들의 위험을 깨달으며 그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쓰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한다. 루터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시험에 종속되기 쉽다고 생각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루터는 시편 34절 6절—"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을 주석하면서 행간 주석란에 "당신께 말하는 자, 곧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자는 바로 저입니다."라고 썼다.³²⁾ 「강화」 속에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인용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그 저작이 지키고 있는 절대적 이원론 (the absolute dualism)과 일치하고 있다. 주석 전반에 걸쳐 현재와 미래,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가 나타나 있다. 에벨링(Gerhard Ebeling)은 이러한 이원론이 중세기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변형 될 만큼 철저한 것이었으며³³⁾ 포괄적인 이원론에 기초한 해석적인 입장은 빈곤에 속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화」에 일관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 언어의 의미가 오직 그 내용의 영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일반 대중의 문자주의 해석은 오직 믿음으로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성으로 이해된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진리를 어둡게 한다.

3. 새로운 정의 : "사회, 경제적 가난" 1516-1519

시편에 관한 정의들 중에서 가난의 개념은 어떤 사회, 경제적 의미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은 굶주림이나 비참함, 억압이나 사회적 무기력성, 정치 구조나 계급 구조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빈곤을 마치 궁핍한 자들이 고상한 삶에 필요한 상품들의 결핍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된다는 식으로 낭만화시킨 것은 아니다. 더우기 루터가 현세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이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강화」는 물질적인 빈곤을 구원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으로 귀속시킨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에 관

31) W. A., 3, 190, 24.

32) W. A., 3, 185, 21.

33) Gerhard Ebeling, *Luther studien*, Band I
Tubingen(J. C. B. Mohr, 1971): 17.

한 강의들 속에서 「강화」에서 주장했던 가난에 관한 단일적인 개념을 포기했다. 그는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세상적 혹은 역사적—문자적 용어로 해석하는 결정적인 단계를 밟았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 가난을 사회,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현실로 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교회와 국가가 독일에서 가난을 만들어 내고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억압과 불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급한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516년에 이러한 해석학적 분기점이 이뤄지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루터는 로마서에 관한 그의 주석 전체를 통하여 초기 작품의 이원론을 점차 극복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강화」에 나타난 익숙한 대조—몸/영혼, 시간/영원, 세상/하늘—가 대조적인 성경적 용어들에게 바탕이 들려져야 하는 반대극들보다 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루터는 「강화」에서보다 로마서(Romans)에서 성경 본문을 더욱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본문 주석에서 그는 그것을 성경 본문과 거의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논의를 위한 입각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절마다 자세한 주석을 하려고 시도했다. 성경적 언어의 역사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 반면 우화적이며 영적인 해석이 덜 자주 사용되었다. 셋째로, 루터는 수도원 담 밖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정치와 불의와 가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성경적 교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당대의 언어를 질서있게 사용했다. 루터는 그의 학생들이 성경적 증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서 불의의 범례들을 예증으로 지적해 주었다.³⁴⁾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의 영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사이를 루터의 저작들 속에서 분명한 분계선을 긋는 일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에 대한 본문 주석과 난의 주석에서 해석학적 분기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사회, 경제적 용어를 사용한 해석

그 한 가지 예가 로마서 12장 16절에 대한 주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낮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자기 지혜를 과시하지 마시오.” 이 구절은 너무나 단순해서 「강화」의 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해석하고 싶은 구절이다. 그러나 루터는 난의 주석에서 바울 사도가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의 조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평민, 문맹자들”³⁵⁾이라고 특별히 지적했다. 루터는 로마서 12장에 대한 주석에서

34) W. A., 56, 480, 3.

하나님 앞에 선 영혼의 자질로써 겸손(humility)을 즉각 포기하지 않고서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의미와 관련시켜 해석했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거듭 반복해서 표현했다.³⁵⁾ 그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특성이 물질적 위안을 즐기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으며(*incurvatus in se*)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변질된 사랑이 모든 사악의 근원이다. 자연인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는 공동선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한다.³⁷⁾ 이러한 “육체의 간교함”은 개인에게 그가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제휴하며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의 연대성을 가진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해준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대개는 가난을 경감시키려는 것과는 모순된 개인적인 동기를 위해서 돕는 것이다.³⁸⁾ 부자들은 로마서 13장 10절—“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자신들을 둔다면, 그들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경의를 외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⁹⁾ 루터는 주석 전반에 걸쳐 세속적인 권위와 교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후들은 무력과 공포로 다스리는 반면 사치스럽게 살고 재산을 축적한다.⁴⁰⁾ 루터는 제후들과 영주들에 의해서 실시된 착취에 대한 기나긴 분석을 하고 나서 에스겔의 말로 그의 주장을 요약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⁴¹⁾

35) W. A. , 56, 480, 3.

36) W. A. , 56, 482, 30.

37) W. A. , 56, 361, 11.

38) W. A. , 56, 459, 5.

39) W. A. , 56, 483, 21.

40) W. A. , 56, 458, 5.

41) W. A. , 56, 458, 5.

2) 제후들과 교회를 공격함

루터는 그보다 거의 10년 후에 쓴 농부들의 「12개 항목」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욱 과격한 용어로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언급한다. : “무슨 권위로 제후들과 세속적인 지배자들이 아무도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야생 동물들과 새들을 스스로 소유했다고 자처하는가? 도대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가? 만일 평민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는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을 훔쳤다고 해서 도적이나 강도나 사기꾼으로 몰릴 것이다. 그러나 제후들과 세속적인 지배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⁴²⁾ 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의 해석학적인 급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빈곤이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른 악의 세력이 가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디어 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보다 더 큰 선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⁴³⁾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둔다면 그 결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그 위에 온 면죄부 논쟁에 사회적인 차원을 부가시켜 주었다. 루터는 그의 「95개조 조항에 대한 해명」(Explanations of the Ninety-five Theses)에서 빵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변변한 옷도 못 입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요구하는 교회를 공격했다. 면죄부 판매자들은 사기꾼들이며, 면죄부는 공개적이며 정신적인 사기 행위로 나타났다. 루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건축과 같은 하찮은 계획에 아무 것도 기여하지 말아야 하며, 돈을 가진 자들은 면죄부를 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⁴⁾ “올바르게 선포된 진리”⁴⁵⁾로서 특징지어지는 한 항목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과 고난을 당하다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교회는 건축을 하거나 장식을 하거나 성기(聖器)를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병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궁핍한 사람들이 없을 때에만 교회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42) W. A. , 56, 189, 15.

43) W. A. , 56, 477, 22.

44) W. A. , 1, 626, 27.

45) W. A. , 1, 598, 37.

3)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다른 컨텍스트에서 루터는 모범 설교(a model sermon)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회개하고(poenitentiam agite),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것은 면죄부 판매자들의 설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었다.⁴⁶⁾ 「95개 조항에 대한 해명」 속에 있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논평 가운데서, 43조항보다 더 중요한 표현을 루터에게 찾기 힘들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리라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루터는 교권적인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의무가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함에 응답해야 하는 것임을 이론적으로만 받아 들인다고 단언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명하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⁴⁸⁾ 만일 사람들에게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은 지체없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빈곤을 추방해야 한다는 루터의 권면을 비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가난은 상당히 깊은 뿌리가 있으므로 그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자선으로 가난이 추방될 수 없으며 교황이 루터가 논의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판다고 할지라도 가난은 남아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에 대한 루터의 불충분한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전개했느냐는 데 있다. 1516년에서 1518까지 전개된 그의 가난의 개념이 더욱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루터는 1518년 말기 또는 1519년 초에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를 사회—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대신에 그는 종교적 해석—즉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가난한 사람들로 대체시켜 놓았다. 성경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의 차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가난한 사람들로 대체시켜 놓았다. 성경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의 차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해되었다. 사회, 경제적 현실로서의 가난은 1511년에서 1525년 사이에 쓴 가장 야심적인 주석 작품인 「Operationes in Psalmos」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46) W. A., 1, 598, 21.

47) W. A., 1, 587, 38.

48) W. A., 1, 600, 14.

4. 해석학적인 후퇴 : “십자가 밑에 선 그리스도인들” 1519-1530

루터가 종교 개혁의 정책과 실천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1520-1525년의 기간중에 그는 가난을 독일 사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경건한 박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적 함축 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1) 가난과 십자가를 동일시하다.

루터의 해석학적 후퇴의 배후에 깔린 결정적인 요인은 그의 십자가의 신학의 출현이었다. 루터는 이 신학을 성경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난에 관한 언어를 고난을 당하며 낮아지고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십자가 아래에 선 그리스도인(the Christian under the Cross)이라는 그의 개념과 결부시켰다. 루터는 1519-1525년의 기간 중에 쓴 가장 중요한 그의 주석, 《Operatians in Psalms》에서 가난을 십자가의 고난과 일관하여 동일시했다. 이러한 고난은 절대적으로 영혼에 관계되어 있다. 그는 경제적 빈곤과 고뇌와 육체적 고통은 영원한 구원에 관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이며 반대로 인간이 이 생에서 죽음의 고난, 절망, 지옥으로 내려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를 가난하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⁴⁹⁾ 그리스도인의 고뇌는 하나님앞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에 의해서 야기 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것, 즉 영적인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해석은 루터에게 있어서 사회, 경제적 이해로부터 영적인 해석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뒷걸음을 의미하며 십자가 신학의 새로운 신학적 윤곽안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 궁핍이 인정되지 않다.

이 기간 중에 가난에 관한 언어를 루터가 해석한 것의 범례가 수백 회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시 22:26)를 논의함에 있어서, 루터는 이 언어가 궁핍 또는 신체의 고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절은 육체적 굶주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원성(eternity)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은총을 사모하며 죄에 억눌려 있으며 양심의 유혹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49) W. A., 5, 632, 18.

들이다. 가난은 시험(Anfechtung)이다. 가난에 관한 성경적 언어는 십자가 아래에 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재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낮아짐이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색다른 모습(personae)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즉 복음적이며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어디서나 ‘불쌍한 사람들’,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들’, 어디서나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가난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곤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져 있다. 인간이 비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분명하게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자들을 멀리서 보신다.”⁵⁰⁾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선고받고 정죄되는 상태로 낮춰진다. 이러한 고초 가운데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위로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십자가 아래선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이다.

5. 마지막 입장: “고난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1530-1546

이 입장은 루터가 가난에 대해서 취한 그의 마지막 입장이다. 1530년경에 루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색다른 입장을 발전시켰다. 루터는 1530년 이후에 오직 복음의 선포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도 필수적이며 기독교적인 일이며 공히 강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1530년 후에 루터는 아무도 그가 궁핍한 자들에 관하여 말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의 이 마지막 입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십자가 신학의 실질적인 사라짐, 농민들의 패배,⁵¹⁾종교 개혁의 발전에 직면해 있는 아주 색다른 상황 때문이다. 루터는 십자가 신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그가 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의 비참함을 완화시켜 줄 수 없음을 직시했다. 그래서 그는 그 동기가 어떠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신학과 그 용어 및 특수한 강조점들을 버리고 가난에 관한 것을 사회, 경제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편 82편에 관한 주석에서 십자가 아래에 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광범위한 본문 내용을 주석 전체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시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실화 시켰다. 루터가 삶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 시기에 그가 가난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사회, 경제적으로

50) W. A., 5, 664, 24.

51) L. W., 13, 64.

해석했을 때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일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의 변명과 위협, 그의 지도와 간청은 모두 당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가난한 자들과 그들의 고난에 대한 그의 관심,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III. 가난한 자들을 위한 칼빈과 루터의 사역과 활동

A. 칼빈의 사역과 활동

모든 시대, 모든 지방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제네바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 1540년대 중반부터 망명객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드는 바람에 제네바는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제네바시는 극빈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또 국립병원은 수용소를 제공하고, 의료혜택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의 교회와 사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⁵²⁾ 칼빈은 사회적으로 빈곤이 배태하고 가난한 자가 속출하자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칼빈의 주장은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한은 정부가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직과 단아함이 유지되도록”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라고 칼빈은 설득했다.⁵³⁾ 이러한 칼빈의 가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정부의 임무와 과제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자선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정책을 세워서 빈민구제를 위한 정치와 실제적인 목회사역을 하게 되었다.

1. 집사직(The Diaconate)

칼빈에 의해 1541년에 입안된 교회 법령들 가운데 “교회 행정의 네 번째 계급 즉 집사들을 다루었던”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이 집사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고대 교회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계급이 있었다. 한 계급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상적인 자선뿐만 아니라 재산과 임대료와 부조금도 받고, 분배하며 물건을 보존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계급이다. 다른 하나

52) 프래드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생명의 말씀사, 1986):91.

5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XX, 13.

는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관리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계급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집사들(procureurs)과 구빈원들(hospitallers)이 있기 때문에 이 관습을 다시 따른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네명의 집사들 가운데 하나는 상기의 구빈원에서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수납계가 되어야 하며, 그가 그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네명의 집사들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말했듯이 수납을 맡게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 구빈원을 위해 임명된 집사들의 수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된 수납 직무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준비가 제때에 맞춰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헌납한 선물이 의도와는 달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귀족들에 의해 할당된 재원이 불충분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필요에 따라 조정에 관해 조언할 것이다. 공립 구빈원이 잘 유지되며 또한 이 기관이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 과부, 고아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지런히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될 것이다. 병자들은 노인이나, 과부, 고아와 기타의 가난한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격리된 방에서 항상 기거해야 될 것이다. 그 외에 도시 전체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집사들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저 선에 걸맞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이 하나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사업을 위하여 예비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이처럼 칼빈이 이해한 집사직은 첫째는 운영하는 직분이고 둘째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살피는 직분이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역시 집사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집사를 위한 두 종류의 일이 바울이 로마인들에 보내는 서신에 다음과 같이 나타

54) Reid, J.K.S, Vol. xx11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64-66., 프레드 그래함, op. cit., 144에서 재인용.

나 있다.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
 홀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8] 바울이 교회의
 공적인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직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 한,
 상반절에서 바울은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는 그러한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런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되었
 듯이 과부들을 들 수 있다(딤펴전 5:9-10).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
 는 그러한 일 이외에 어떤 다른 공적인 직분을 지닐 수 없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인다면, 두 종류의 일을 하는 집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교회의 사역을 관여하고 집행하는 집사와 실
 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도우고 돌보는 일을 하는 집사이다."55)

칼빈은 집사의 두드러지는 직무에 사제들이 직무와 비교할 때 가난
 한 자들에 대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집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직 자체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칼빈의 집사직에 대
 한 개념은 무엇보다 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교회의 사회참여 즉 사회봉사와 윤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6) 그러므로 집사직은 돈을 다루고, 구빈원
 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편제되었다.
 집사들은 네개의 수입원이 있었다. 즉 구빈원과 원장과 외과 의사의 회
 사금이나 자선금 그리고 자선을 위해 헌납된 물건들의 판매등의 네수입
 원들이다. 특히 이 수입원들 주에 벌금은 칼빈에 의해서 고안되어 1546
 년에 통과되어 지방교구 조례(the Ordinances for the Country
 Parishes)로 채택되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수령액의 삼분의 일이 교
 구와 지방의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다른 삼분의 일은 집사들에게
 돌아가도록 배분이 되었다. 이 규례는 전혀 이의 신청이 없었다.57) 이처

5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iii, 9.

56) Robert M.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in *Piety, Politics, and Ethics*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Mo.: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1984):167., 신원하, op. cit., 16에서 재인용.

57) 프레드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생명의 말씀사, 1986):147.

럼 잘 조직된 제네바의 가난 사역은 집사들과 자선 조직에 의해서 잘 시행되어졌다. 확실히 피난민들로 들끓는 도시로 그러한 제도를 필요로 했으며, 칼빈의 천재성에 힘입어 그 제도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칼빈의 집사 직무는 사회복지와 가난구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결론으로 말할 수 있다.

2. 종합구빈원(The General Hospital)

종교개혁 이전 제네바시에는 일곱개의 작은 병원들이 있었다. 각각의 병원은 그 일들의 강조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다. 여행자들을 위한 구빈원, 병자들을 위한 구빈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후에는 1535년 11월 29일 시의회가 생트 클레르(Sainte Claire)의 고대 수녀원에 새로운 종합 구빈원(The general hospital)을 설립했다.⁵⁸⁾ 시의회가 카톨릭 성직자들이 떠나면서 버리고 간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것을 개축하고 비품을 샀다. 때때로 성령의 구빈원으로도 불리워졌던 이 종합 구빈원은 병자들,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호구지책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의 항구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교회 규제집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⁵⁹⁾ 그래서 당시의 종합구호원은 현재의 '병원'과는 달리 그 기능에 있어서 훨씬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종합구호원은 빈곤에 처해 있는 모든 분류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도우는 기관이었다.⁶⁰⁾ 종합구호원은 단지 환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처, 의료진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일도 했다. 종합구호원은 전지역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식량을 배급했었고 이제 막 제네바에 도착하여 숙박료를 낼 수 없는 방문객들에게 숙박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 저녁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다.⁶¹⁾ 종합구호원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집사들(procureurs)과 봉사집사들(hospitallers)이 임명되었다. 이같은 두 분류의 봉사자들은 원래 일곱 병원에서부터 일해 왔었다. 그들은 모두 성직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었다. 칼빈은 그의 "신학논문집(Theological Treatises)에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58) Ibid., 149.

59) Ibid., 150.

60)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no.1(Feb., 1971):52., 신원하, op. cit., 14에서 재 인용.

61) Ibid.

“그들이 임무는 공공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잘 운영되도록 부지런히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병자나 일할 수 없는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⁶²⁾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관리집사들의 일은 봉사집사들과는 구분이 되었다. 봉사자들은 온종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과 농작물, 소 떼들, 말들, 그밖의 다른 가족들까지도 돌보았다. 이일 외에도 방직, 구호원에서의 수직물 제작까지도 관여했었다.⁶³⁾ 이와는 달리 관리집사들은 봉사집사들이 매주 한일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듣고 필요한 물품의 요청이 있으면 자세히 검토하고, 승인하고 봉사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였다. 특히 그들은 종합구호원에 관한 모든 법적인 계약등 법적인 사항들을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관리집사들은 구호원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직을 맡은 자들인 것이다. 구빈원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옛날 기록 문서들에게 이따금 발견된다. 1544년 8월 29일에 현직의 구빈원 원장의 실수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했던 인물이 바로 칼빈이었다. 목사 칼빈은 성령 구빈원의 원장인 쥐스탱(Justin)이 도둑이며, 외국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가난한 병자에게 배급된 빵을 팔아먹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그들의 수당을 가로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을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쥐스탱은 징계에 처부되어 면직되어야 할 것이다. (쥐스탱은 그 날 면직되었다).⁶⁴⁾ 비록 종합구호원을 칼빈이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이 1537년에 제네바에 온 이후로 그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제도를 괄목하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칼빈은 구빈원에다 의류 제조업이나 퍼스티언(Fustion)천 직물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의해서 임명된 다섯명 가운데 한사람이 있으며 여기에서 칼빈의 영향이 철저하게 스며들었다.

3. 상업

상업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조화로운 사회질서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교역은 사회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교통함을 뜻한다. 상업은

62) Calvin,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65., 신원하, op. cit., 15에서 재인용.

63) 프레드 그레함, op. cit., 153.

64) Opera, 21, 343., 프레드 그레함, op. cit., 152에서 재인용.

노동의 분업화를 보충해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함으로써 칼빈의 경제사상이 중세신학자나 루터 등과도 구별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 유통됨으로써 인간의 고통이 줄어들고 삶이 쾌적하게 되는데 상업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와 부정 등으로 경제관계를 왜곡시키게 되고 결국은 인간과 단체를 고립시켜 사회질서를 파괴하게 되며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신 영역과 상품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⁶⁵⁾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업과 교역을 통제함으로써 교역이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역의 수단인 계약, 추, 저울, 화폐등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 도, 량, 형을 속이게 되면 인간관계는 상호불신으로 인해 서로 적대관계에 빠지게 되고 화폐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계약은 도적질과 강도의 짓으로 변하고, 물가 폭동이 일어 나게되면 매점매석이 이루어지는 등 투기 행위가 성행하게 되니 경제질서가 교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칼빈은 매점매석자들을 살인자와 다름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유통을 막아 물가를 올리므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할 곡식을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빈민의 목을 칼로 자르고 있다고 외쳤다.⁶⁶⁾ 칼빈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제네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밀, 빵, 고기 등 1차 생필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균등하게 분배하도록하고 사재기, 매점매석, 투기를 억제했는데 이것은 칼빈의 경제사상이 그대로 현실화 되었음을 말한다. 중세 신학자들 뿐 당시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상업에 끊임없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빈은 농업의 증진과 동시에 상업도 장려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4. 사치금지법(Sumptuary Laws)

칼빈의 가난의 신학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사역에서 사치금지법만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없을 것이다. 사치금지법은 법을 통하여 개인의 사적인 행동까지 규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덕적 행위, 정신적 의무를 강조하되 사회 공공복지와 같은 여러 다른 영역에서의 개인의 윤리와 책임

65) 존 칼빈, *op. cit.*, 이사야 23:17.

66) 존 칼빈, *op. cit.*, 신명기 25:13~19.

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윤리성을 부각시켜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법적으로 윤리적 책임성을 묻고 지나친 자유를 법령으로 규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치금지법은 공공의 복리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실제로 시행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빈곤을 추방하고 퇴치하려는 목적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시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이 경제적인 파탄을 맞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리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부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들의 삶을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치금지법은 1558년 실제로 제네바시 평의회 결의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의복과 음식에 관한 규제부터 시작되었다. 지나치게 옷을 많이 산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음식을 과도하게 장만하고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졌다. 예를 들자면 비록 잔치라 하더라도 3가지 코스 이상이 나오는 대정식이라든지, 한 코스에 주요 요리가 4개 이상 나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간주되어졌다.

67) 칼빈은 개인들이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것이 공공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부자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의기가 소침해 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공공의 삶을 붕괴하기에 이르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치에 대해 쓴, 탈고되지 못한 글에서, “만약 부자들이 개인적인 근검절약의 정신을 익히고 배웠더라면 결코 사회적으로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⁶⁸⁾ 개인들이 검소하게 사는 일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격차와 위화감을 줄이고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과 시민의 부를 증대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했고 또 그것을 시행했다. 위에서 본 바대로 칼빈은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서 돌보는 관심을 기울였으며,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을 퇴치

67) 프레드 그레함, op. cit., 165.

68) John Calvin, *De Luxu*, p.206, quoted with trans. by Ford Lewis Battles, "Against Luxury and License in Geneva", in *Interpretation* 19 (Jan, 1965): 195., 신원하, op. cit., 19에서 재인용.

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갔었다.

5. 고리대금업

성경에는 고리대금에 관한 구절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이를 금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칼빈은 공익을 위해서는 인정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⁶⁹⁾ 칼빈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면서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은 그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므로 아무런 이득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칼빈은 고리대에 대한 성경의 내용에서 그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는데 (1) 성경속의 법은 정치적이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명백하게 고리대금업을 금지한 곳은 없다. (2) 어느경우 언제나 적용될 규칙은 바로 사랑의 규칙이다. 고리대금업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랑의 규칙에 비추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연히 행하여 졌던 모순을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해결 함으로서 이후에 자본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칼빈이 살던 시대는 토지에 의존하던 자연경제에서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경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칼빈은 새로 태어나고 있던 세계에 이해를 하고 그 세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는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하면서도 빌린돈을 이용하여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대금은 구별하였다. 칼빈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고리대금업을 성경을 토대로 이해하여 그것을 신학적으로 합법화 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유럽은 새로운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칼빈의 경제관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어서 당시 제네바가 처한 사회상을 모델로 삼아 혁신적인 개혁의 이론을 전개한 셈이었다. 그는 교회도 자본주의적인 경제 조직위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그 가정위에서 경제윤리를 정립하였다. 토니(R.H. Tawney)에 의하면 칼빈의 상업문명의 특징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거나 특히 중개업자를 기생충적인 존재라고 매도해 버리고 또 고리대금업자를 도둑놈이라고 낙인을 찍던 중세이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 버렸다.⁷⁰⁾ 그는 방종의 기질로서 낭비를 일삼는

69) 앙드레 비엘러, op. cit., 102~105 참조.

것을 격렬하게 비난하였으나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고리대금업을 인정하였으나 윤리적인 입장에서 빈민으로부터 과도한 고리를 짜내는 것은 중오했으며 상인이 남의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윤을 남긴 경우에는 차급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상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신흥부르조아 계급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상은 축재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믿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신흥 상업자본가들은 의기소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칼빈이 당시의 부르조아 계급의 입장을 옹호했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지지자들이 많아 이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가 유럽과 세계 각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토인비(Arnold Toynbee)가 주장한 바와 같이 뒷날 마르크스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기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칼빈주의는 부르조아 계급을 형성하여 권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B. 루터의 사역과 활동.

칼빈이 제도와 기구적인 면에 의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한 반면에 루터는 그 바깥에서 활발히 사역한 인물이다. 즉 그는 제도와 기구를 통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제도의 잘못을 시정하면서 새로운 대안만을 제시하였다. 사실 루터의 경제 윤리 사상은 그의 탄생 500 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의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루터에 대한 사역과 활동을 논함에 있어서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그의 경제 사상사적 의의를 그의 공정 가격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일반적인 그의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과 사치금지법을 통하여 그가 가난한자를 위해서 노력한 일면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공정 가격론

루터는 1524년 9월에 ‘상행위와 폭리에 대하여’(Von Kaufs-handlung und Wucher)라는 글을 통하여 공정가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루터가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속의 정부 당국은 상품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전문가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모든 상품에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또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70) R.H.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New York : Mentor Book, 1947):93.

수 없다.”고 하므로 전자는 최선의 공정 가격이며 후자는 차선의 공정 가격을 주장했다.71) 공정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루터는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세속 정부의 적극적인 결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상품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고 싶다는 것이며 이웃에 대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속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이미 자본주의 자유 경쟁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속 정부가 강력히 경제 사회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 이론을 이미 450여년 전에 주장한 셈이다. 적극적인 세속 정부의 가격 결정을 주장하면서도 그는 덧붙여 상인들의 무리한 이익 추구가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원래 상행위는 이웃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양심에 따른 상행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법정 가격72)을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면서도 그는 차선의 방법으로 시장 가격73)을 또한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상품과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시장 그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과도한 이익이 경우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인정해야 했다. 루터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지닌 본성은 한결같이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인이나 회사가 독점 가격을 조작한다면 제후나 영주들은 이것을 강력히 제지해야 하며, 시장에 있어서 상인들의 위험 부담의 상존성 때문에 시장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이나 위험의 부담을 이윤 추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이윤 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제한 없는 이윤 추구로 상거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했

71) 김덕복, “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본 M.Luther의 공정가격론”(교회문제연구 제 5집, 1986): 251.

72) 법정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랑게스타인(H. Langenstein), 게르손(J. Gerso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군주와 국가기관이 공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된 가격이 법정가격이라는 것이다.

73) 시장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보는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이다. 그는 시장에서 상인이 정하는 그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시장가격이라 하였다.

던 것이다.⁷⁴⁾ 이처럼 루터는 당시의 상거래 질서 파괴의 위험을 알고 똑 같이 가난한 이웃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가격론을 내세워 가난한 이웃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헌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사유재산권

루터의 사유 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은 모든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봉사를 하는 데 사용해야할 물건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의 이웃에게 무엇인가 주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속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은 사랑의 규범(the norm of love)에 기초하고 있다.⁷⁵⁾ 이것은 특별히 세속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 세상을 계속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돈과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주들과 군주들과 같은 정부의 관리들은 이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들도 역시 이것을 필요로 한다.⁷⁶⁾ 루터는 사유 재산에 관한 그의 입장을 어떤 것을

74) 김덕복, op, cit., 252.

75) “만일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남에게 주고자 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든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일년 후에도 주고자 한다면(그리스도는 나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는 오늘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신다.” WA 51, 384. 루터는 “네게 있는 것을 팔라”는 예수의 권고에 기초하여 이것을 역시 논증한다. 예수께서 네게 있는 것을 팔라는 권고의 말씀은 사유재산을 전제하고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주거나 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조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도둑질을 금하고 있는 계명도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WA 39, 39.

76) “돈, 재산, 명예, 권력, 땅 그리고 종을 소유하는 일은 세속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것들 없이는 세속적 영역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주 또는 군주는 가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의 직임과 신분은 이

소유하는 것이 사실에 조리있게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루터는 열광 주의자들과 농민들이 때때로 주장했던 공산주의를 거부했다. 사랑은 참으로 크리스찬에게 자기 자신과 그의 재산을 가난한 그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법은 사랑 자체를 위하여 내 것과 당신의 것 사이에 경계선을 정해 놓았으나 나의 이웃의 필요에 직면할 때에 사랑은 이 경계선을 옮기게 만든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섬기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져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사랑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웃을 돌보기 위한 공통적 노력으로 그들의 재산을 기부하도록 인도한다. 초대교인들 사이에서 소유를 서로 나누어 가진 일은 이러한 사랑의 행위였다. 한 편에서, 사람들이 사유 재산을 갖고 있을 때에만 이렇게 나누어 갖는 일이 가능하다.⁷⁷⁾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어떤 환경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일이 적절하지만)를 일반적 원리로 만들거나 또는 마치 복음은 항상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유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도화할 수는 없다.⁷⁸⁾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그의 사유 재산 또는 그밖에 다른 것에 분리할 수 없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롭다. 그는 언제든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소유를 기쁘게 희생하거나 상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⁷⁹⁾ 크리스찬이 그의 이웃을 도울 필요가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재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역시 자유롭다. 그가 그의 소유로 그의 이웃을 섬기고 또 그의 이웃이 어려울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주셨다. 이것이 소유의 의미이다. 소유는 단순히 쌓아둘 때에는 좋은 “물건들”이 될 수 없다.⁸⁰⁾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 자신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

와 같은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조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가난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들 모두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거지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다. 만일 가장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는 그의 가족과 종들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다.” WA 32, 307: LW 21, 12.

77) WA 39, 63, 68-69.

78)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행한 것 처럼 자진하여 자기들의 소유들을 공유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음은 사유재산을 공유물로 만들지 않는다.” WA 18, 359: LW 46, 51.

79) WA, 39, 40.

80) WA, 19, 561: LW, 14, 219.

는 데 소유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이웃에게 속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unrighteous Mammon)이다. 81)

3. 이자

루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거부한다. 누구든지 빌려준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이다. 루터는 이 점에 대하여 산상수훈과 신명기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적으로 교회 교부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82)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없이 빌려 주거나 또는(더 바람직한 것은) 그저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83) 다만 크리스찬이 빌려줄 만큼 여유가 없는 데도 빌려줄 경우에만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자는 제한 되어야만 한다-약 4퍼센트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부담해야만 한다. 채무자의 수입에 따라 이자의 비율이 조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자율의 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 84)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자유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이 이 일들을 규제할 세속적 법을 제정할 것을 필요하지 않게 한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그들의 소유를 그들로부터 빼앗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세속당국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둑질, 강도질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평화, 사업, 그리고 상업은 파멸되고 말 것이다. 크리스찬은 그들이 빌려준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빌린 것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사랑은 세속 당국이 그 시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을 대신 하지 않는다. 85) 루터는 당시에 실시되고 있던 저당물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역시 거부하였다. 루터 당시의 관습은 지목되지 않은 부동산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루터 당시 이전에는 어느 지목된 특정한 재산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관습이었다. 루터는 “마귀가 이런 관습을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저당

81) WA, 10, 275.

82) WA, 6, 47.

83) WA, 15, 303; LW, 45, 259-60.

84) WA, 6, 57; LW, 45, 303.

85) WA, 15, 302; LW, 45, 258.

을 잡고 이자를 받는 관습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⁸⁶⁾ 루터는 이 사업을 사랑과 평등의 정신을 갖고 할 것을 제의한다. 루터가 이자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정의한 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D. 상업

루터는 사고 파는 상업이 관한 그의 의견을 역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교훈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역의 규정을 이성에게 맡기셨다.⁸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주로 크리스찬을 위하여 이 영역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제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문제는 이성 뿐만 아니라 양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⁸⁸⁾ 이것과 관련하여 그는 당시의 사업을 하는 방식에 관하여 논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예리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요령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가 간파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무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품을 될 수 있는대로 높은 값에 판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객들의 필요와 곤경을 최대한대로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연법과 복음을 모두 범하고 있다.⁸⁹⁾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원료의 가격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기 보다는 실업인이 취하는 모험의 조건에서 합리적 가격과 이윤의 비율에 도달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루터는 보여주고 있다.⁹⁰⁾ 루터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자본주의와 세계 무역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무역회사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독점 판매에 대하여 반대한다.⁹¹⁾ 돈에 기초한 전체적 새로운 경제는 그에게는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 왕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저축할 수 있을까?”⁹²⁾ “한 사람이 단시일내에 왕의 권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⁹³⁾ 루터는 특별히 야콥 퍼거(Jacob Fugger)를 거

86) WA, 6, 466: LW, 44, 213.

87) WA, 32, 395.

88) WA, 15, 294: LW, 45, 247.

89) WA, 15, 295: LW, 45, 247.

90) WA, 15, 296: LW, 45, 248.

91) WA, 15, 305, 312

92) WA 6, 466: LW44, 213

93) WA, 15, 312: LW45, 271.

낭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퍼거의 회사와 이와 유사한 회사의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⁹⁴⁾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윤만을 얻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처럼 보인다. 그 예외는 기본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들은 그들이 그들의 자본의 투자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사랑과 자연적 평등의 정신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루터는 그 당시의 경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고하였다. 그는 그 경제적 발전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 무역과 자본주의 법칙 아래서 살고 있으므로 경제적 개발을 원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무리 우리들이 그의 개인적 판단을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사랑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 생활을 비판한 그 진지성은 타당한 본보기로 남는다. 그가 정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주의적 자율(Machiavellian autonomy)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꼭 같이, 사업에 있어서 물질주의적 자율(mammonistic autonomy)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경제 조직의 왜곡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들이 재산과 사업에 관하여 루터가 말한 것을 다시 듣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5. 사치금지법

루터도 칼빈과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 사회내에서 사치금지를 위해서 의복과 조미료와 과도한 음식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 독일은 매우 많은 귀족들과 부호들이 빈곤하게 되는 의복의 낭비와 사치를 금하는 일반적인 법령과 명령을 크게 필요로 한다.⁹⁵⁾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신분에게 어울리고 훌륭한 의복으로 적합한 양모, 머리털, 아마(亞麻) 및 다른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과 귀금속, 장신구와 다른 외국 물품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비록 교황이 참을 수 없는 착취로 우리 독일 사람들을 약탈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국내 강도들인 비단과 비로도 상인들⁹⁶⁾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94) WA, 6, 466: LW44, 213.

95) A. Wrede, *Deutsche Reichstagsakten unter Kaiser Karl V.*, 11. 335., 말틴루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역(킨콜디아사, 1993): 118에서 재인용.

96) Cf, W. A., 15: 293ff.

믿고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의복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며, 또한 당연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교만과 질투가 일어나 점점 더해간다. 만일 우리의 호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여기게만 한다면 이런 모든 것과 훨씬 더 많은 비참한 일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미료 거래⁹⁷⁾도 역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돈이 독일 나라 밖으로 운반되는 또 다른 큰 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먹고 마실 것이 더 많이 생산되며, 또한 품질도 좋다. 아마 내가 내놓는 제안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내가 모든 장사 중에서 제일 큰 상업을 억압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게 하라. 나는 많은 좋은 습관이 상업을 통하여 한 나라에 들어 온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하셨으며, 또한 저들을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다음에는 외국에서 우리 독일 사람들의 특별한 악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가져다 주는 음식의 남용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⁹⁸⁾ 이것은 설교로도 막을 수 없다. 이 남용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며 너무나 우세하게 되었다. 만일 여기에 살인, 간음, 도적질, 독신 및 모든 악습 등 다른 죄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남용으로 인하여 오는 돈의 낭비는 소소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세적인 칼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될 것이다. 곧 “저들이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구혼하며, 세우고 심으며, 사고 팔 때에 마지막 날이 숨겨진 것처럼 될 것이다.”(눅21:34이하). 비록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심판 날이 임박했다고 지금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치금지법을 나름대로 규제하였다.

위풍 당당한 개혁자 말틴 루터 역시 가난 해방 시대에 그의 신앙을 실행으로 옮겼다.

1520년 독일귀족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루터는 강하게 모든 종류

97) Wrede, op. cit., III, 576, . 지원용역, op. cit., 119에서 재인용.

98) 지원용역, op. cit., 121.

의 구걸과 거지생활 그리고 도시가 가난한 자들에게 책임을 떠 맡기는 것을 비난했다.⁹⁹⁾ 구걸은 루터의 '오직 은혜' 아래서 제거되어야만 했다. 구걸은 수도원적인 이상과 가치있는 것으로 더 이상 보여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완전한 모습도 아니었다. 더 이상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벨로니아 감금”(Babylonian Captivity)에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 집사의 역할과 반대로 가난한 자의 사역을 위해 집사직을 들 것을 말했다.

“집사직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회의 선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사역직이다”¹⁰⁰⁾고 했다.

또한 루터는 1522년 비텐베르그에서 교회법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공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을 돕기도 했다.

루터의 이런 광범위한 가난 해방사역들은 이후에 많은 이론적인 기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IV. 가난한 자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

이제 가난한자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으로 첫째, 개인적 차원 둘째, 교회적 차원

세째,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 개인적 차원

크리스찬은 진정 빈곤해져야 하는가? 존 테일러(John V. Taylor)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빈곤(poverty)이란 단어가 우리를 귀에 너무도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negative and extreme)들리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소박성(simplicity)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핵심을 창조해 주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enemy)은 소유(possession)아니라 남용(낭비, excess)이다. 우리의 외침은 아무것도 없는(nothing)이 아니라 충분히(enough)인 것이다.¹⁰¹⁾ 크리스찬의 소박성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 그것으로 족하다”¹⁰²⁾(딤후 6:8)고 말한다. 크리스찬의 자족(contentment)하는 마음은

99) David W. Hall, *Welfare Reformed a compassionate approach*, p and R publishing philipsburg(New Jersey):154.

100) Ibid., 156.

101) John V. Taylor, *Enough is Enough*. (London : SCM Press. 1975): 81-82.

경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크리스찬은 빈곤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 같이 전적인 자발적 빈곤의 생활로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소명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부자로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로부터 연원하는 자만성, 그리고 물질주의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원래 부는 두 가지의 폐해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부로 인하여 인간이 동료 인간을 무시하게 되는 폐해성이며 둘째는, 부로 인하여 인간이 동료 인간을 무시하게 되는 폐해성을 노정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크리스찬은 후히 베푸는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자족하는 소박성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점은 우리들 자신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들, 또는 규정들을 부과시키는 일이며, 그로부터 바리새주의에 빠져 드는 일이다.¹⁰²⁾ 나아가 물질에 너무 사로잡히는 물질주의(materialism)나,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들을 부정하는 지나친 절제생활을 지향하는 금욕주의(asceticism), 그리고 이 양자를 규칙적으로 묶어버리려는 바리새적 형식주의(pharisaism)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크리스찬의 소박성의 원칙은 명확하다. 이 소박성의 가장 유사한 성격은 바로 자족이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곳으로 이 필요를 측정한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들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낭비와 탐욕, 그리고 난잡함을 증오한다. 그것은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도 아울러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30:8)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부터 떼어놓은 그 어떤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1974년 스위스 로잔느(Lausanne)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개최된 로잔느 협약(Lausanne Covenant) 가운데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목들 중 하나는, 곧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무수한 빈곤한 자들 때문에 충격

102) 존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93.

을 받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의(injustice)때문에 좌절을 느낀다. 풍요로운 환경들 속에서 사는 우리는 선교는 물론 구제에도 더욱 아낌없이 기여하기 위한 소박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¹⁰³⁾고 천명하고 있다. 1980년 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이 항목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국제회의는 “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복음주의적 공약”(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 Style)을 발표했는데 그 아홉가지의 항목들은 세심하게 논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5항의 표제는 ‘개인의 생활양식’(personal Lifestyle)인데 소박성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것은 낭비를 지향하고 개인의 생활, 의복, 주택, 여행, 그리고 심지어 교회 건축의 호화스러움에 반대한다(renounce waste and oppose extravagance in personal living, clothing and housing, travel and church building)는 일반적 결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 의미의 금욕주의와는 다르며 반면에 그것은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 박사의 논문 “복음화와 정의를 위한 더 소박한 생활”(Living More Simply for Evangelism and Justice)에서 상당량의 중요한 구분들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필수품들과 사치품들, 창조적인 취미들과 공허한 신분적 상징들, 수수함과 천박스러움, 정기적인 행사들과 정상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일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인다.”¹⁰⁴⁾ 여기에 나타난 윤리는 소박한 생활이 근심에서 벗어난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아낌없는 너그러움의 원칙 또한 명백히 드러나 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요일 3:17),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후하신 분이시다. 만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가진 바 소유를 보는 바 필요한 자에게 연결시키는 실천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활양식이 소박해지고 자족속에서도 풍요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103) *The Lausanne Covenant*-“An Exposition and Commentary”. John R.W. Stott,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3.1974):21-25.

104)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Exposition and Commentary by A.Nichols.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20.1980); Ronald Cider, *Life Style in the Eighties*. (Paternoster Press.1982):16.35-36.

것이다.

B. 교회적 차원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교회로 하여금 가난이 무엇이며 가난이 어디에서 오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먼저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만난 많은 교회의 제직 및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의 생활 설명을 듣고 아직도 한국에 그렇게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이들은 멀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아니면 그 교회 지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가난한 이에 대하여 강도만난 도둑 옆을 항상 스쳐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둘째, 가난 속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난한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야 할 때 교회는 가진 것을 던져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루터와 칼빈이 그 입장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루터는 가난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이며 교회는 옆에서 도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칼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옆에서 던져주는 식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하나의 목회로 되어 그들 속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⁵⁾ 교회가 가난한 자로 자처하지 아니할 때 가난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고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교회가 가난한 자들 속에 한 이웃으로 동참할 때 참으로 가난을 볼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나의 것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회의 가난한 자들로 그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 궁리하여 극복하여 살도록 지켜보고 도와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 살아가도록 많은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오늘날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이런저런 양태로 많이 보고 있다. 도움이라는 도구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삶 전체에 살 수는 없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을 교회는 채워줄 따름이다.

C. 사회·구조적 차원

105)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우리모두는 개인과 가족과 이웃으로서, 또 학교는 학교대로, 노동 조합은 노동 조합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

기업은 주주와 피고용인만을 돌보면 되고 정부는 가난한 자들을 책임 지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고용자와 피고용인, 이웃과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궁핍한 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또 가정은 노인들을 잘 돌보아 드려서 노인들이 별로 좋지 않은 사회 사업가나 양로원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조합은 그 조합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자들이 흑사 당하는 소규모 공장의 노동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1) 사회 제도가 사람들에게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자원을 보장하도록 자문하고 규제하는 입법 체계를 발전시킬 것.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인간답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재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 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규정을 설정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가난에 얽매어 있을 때, 정부는 정의에 입각하여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근로자, 영세민, 신체장애자, 노인, 실업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모두는 개인과 가족과 이웃으로서, 또 학교는 학교대로, 노동 조합은 노동 조합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

기업은 주주와 피고용인만을 돌보면 되고 정부는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고용자와 피고용인, 이웃과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궁핍한 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또 가정은 노인들을 잘 돌보아 드려서 노인들이 별로 좋지 않은 사회 사업가나 양로원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조합은 그 조합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자들이 흑사 당하는 소규모 공장의 노동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1) 사회 제도가 사람들에게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자원을 보장하도록 자문하고 규제하는 입법 체계를 발전시킬 것.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인간답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재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 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규정을 설정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가난에 얽매어 있을 때, 정부는 정의에 입각하여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근로자, 영세민, 신체장애자, 노인, 실업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것은 바로 제도화, 법률화를 통해 그의 신학적 신념을 실현시키는 대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루터는 하나님께로 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서의 의인이 그의 가난의 신학을 형성하는 출발점이었다. 의인으로서 당연히 가난한 이웃을 도울뿐만 아니라 이웃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기에 가난한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다. 신실한 자들과 동일시 했으며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서 가난을 사회경제적 가난으로 해석했으며, 그의 주석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그리고 가난한자를 돌아보지 않는 제후와 교회를 공격하였다. 나아가서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설교했다. 루터는 1519년에서 1530년 사이 가난과 십자가를 동일시 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로, 복음적이며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겸손한 자들이며 어디서나 온유한 자들이라 했다. 루터는 이처럼 가난한 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역과 활동을 전개했다. 그의 공정가격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윤이 돌아가게 했으며, 사유재산법과 이자, 상업, 사치금지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수 있을까 하며 힘썼다. 그의 3대 논문에서도 교회와 정부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 것이라 하였다. 우리는 이 두사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며, 개인과 교회 나아가서 사회는 이 두사람의 가난한 자에 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아가 대두되어 지고 있는 이때 신자개인은 소박성을 지니고 교회도 그쪽으로 문을 열어 도울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경제적 발전을 해왔다. 이와 병행하여 교회역시 비대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 봉사의 기능은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이다.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구제 봉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신자 개인 한사람 한사람도 역시 이웃을 향해 구제 봉사 하는 손을 펴야 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 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시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7~11)

참 고 문 헌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XX and XX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ider, Ronald. *Life Style in the Eighties*. (Paternoster Press, 1982).
- Ebeling, Gerhard. *Luther Studien*, Band I Tubingen: J. C. B. Mohr, 1971.
- Hall, W. David, *Welfare Reformed a compassionate approach*, P & R
Publishing Philipsburg New Jersey.
- Lindberg, Carter.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Fortress Press, Minneapolis.
- Nichols, A.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Exposition and Commentary.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 20. 1980)
- Reid, J. K. S, Vol. XXII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Stoker, H. G, "Calvin and Ethics", in *John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ha (Grand Rapids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Stott, John R. W. *The Lansanne Covenant "An Expositon and
Commentary"*. (Lausanne Occasiomal Papers, No 3. 1974)
- Taylor, John V. *Enough is Enough*, (London: SCM Press, 1975)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tism*. New York: Mentor
Book, 1953.
- W. A [루터 전집] 바이마르판(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
Gesamtausgabe. Weima: Bohlau, 1883ff)
- L. W Luther's Works. st. louis: Conocordia Publishing House; an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ff by Jaraslav Pelikan and
Helmut T. Lehmann
- 말틴루터,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역(킨콜디아사, 1993).
-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역(성광문화사, 1985).

참 고 문 헌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XX and XX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ider, Ronald. *Life Style in the Eighties*. (Paternoster Press, 1982).
- Ebeling, Gerhard. *Luther Studien*, Band I Tubingen: J. C. B. Mohr, 1971.
- Hall, W. David, *Welfare Reformed a compassionate approach*, P & R
Publishing Philipsburg New Jersey.
- Lindberg. Carter.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Fortress Press, Minneapolis.
- Nichols, A.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Exposition and Commentary.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 20. 1980)
- Reid, J. K. S, Vol. XXII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Stoker, H. G, "Calvin and Ethics", in *John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ha (Grand Rapids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Stott, John R. W. *The Lansanne Covenant "An Expositon and
Commentary"*. (Lausanne Occasiomal Papers, No 3. 1974)
- Taylor, John V. *Enough is Enough*, (London: SCM Press, 1975)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tism*. New York: Mentor
Book, 1953.
- W. A 「루터 전집」 바이마르판(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
Gesamtausgabe. Weima: Bohlau, 1883ff)
- L. W Luther's Works. st. louis: Conocordia Publishing House; an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ff by Jaraslav Pelikan and
Helmut T. Lehmann
- 말틴루터,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역(킨콜디아사, 1993).
-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역(성광문화사, 1985).

- 존스타트, 현대사회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기독교문서 선교회, 1985).
- 존 칼빈, 공관복음 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공관복음 II,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디모데전서,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신명기,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이사야,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성서교재간행사, 1979).
- 파울알트하우스, 말틴루터의 윤리, 이희숙역(킨콜디아사, 1989).
- 프레드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역(생명의 말씀사, 1986).
- 김덕복, “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본 M.Luther의 공정가격론”,
(교회문제 연구 제 5집, 1986).
-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 신원하, “칼빈의 가난의 신학과 윤리”, (고려신학보 제25집, 1993).

참 고 도 서

- Battles, Ford Lewis. "Against Luxury and Licenwe in Geneva:
A Forgotten Fragment of Calvin. " *Interpretation* 19(Jan. ,
1965):182-202
- Bouwsma, Wi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Calvin, Joh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and Intro. and Note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Gamble, Richard. "Mercy Ministries in European Cities During the
Refrlmation." *Urban Mission* 6(Sep. 1988):27-31.
- Gingerich, Barbara Nelson. "Poverty and the Gospel: Two Reformation
Perspectives.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59(Jul. 1985):
248-267.
-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1
- Innes. ,William C. *Social Concern in Caluin's Geneva*. Allison Park,
Pensylvania:Pickwick Publications, 1983.
- Kingdon, Robert M.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Theological in Origin." *Piety, Politics, and Ethics: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orge Wolfgang Forell*,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Missouri: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Inc. , 1984.
- "Soical Welfare in Calu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59(Feb. , 1971):50-69.
- Lindberg. Carter. 'There Should Be No Beggars Among Christians':
Darlstadt, "Luther, and the Origin of Protestant poor Relief."
Church History 46/3 (1977):313-334.
- McKee, Elsie Anne. "Calvin's Exegesis of Romans 12:8-Social,
Accidental, Or Theologic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
(Apl. 1988):6-18.
- Mckee, Elsie Ann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 Almasgiving. "Ph. 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82.
- McNeill, John Calvin: Doctor Ecclesiae."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Mouw, Richard J. "Toward an Evangelical Theology of Poverty,"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the Modern World*. Ed. Mark A. Noll and David F. Wel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88. Nichols
- Olson Jeannine E.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9. Reicl
- Scholl, Hans.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The Ecumenical Review* 32(1980): 236-256.
- Stackhouse, Max L. "Protestantism and Poverty".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ed. Richaed John Neuha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Grand Rapids: Wm. b. Eerdmams Publishing Company, 1959.
-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ishing Company, 1983.
-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The Reformed Journal*. 37(Jun. 1987): 14-22.